"서해안철도 군산서 목포까지 확장해야"

"새만금~고창~영광~목포 141㎞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전남북 5개 지자체장 공동 건의

서해안권 경제협력벨트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남·북 서해안까지 철도 인프라를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북 5개 지역 자치단체로 구성된 서해안철도 실무협의회는 전날 영광군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철도 건설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실무협의회에는 서해안철도 경유지인 영광·무안·함평군을 비롯해 전북 고창·부안군 등 5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를 비롯해 김산 무안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유기상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등은 국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건의문에 직접 서명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했다.

이들 단체장이 공동 건의한 '서해안철도 건설 사업'은 장항선(천안~익산)을 목포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산~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무안~목포까지 141.4㎞를 연결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조30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단체장은 서해안철도 노선이 확장되면 수도권 중심의 교통 집중이 분산되고, 대량 수송을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침체되고 낙후된 서해안권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단체장은 "서해안철도는 산업·물류·교통 SOC망 확대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 경제지도이자, 3대 경제벨트 중 하나인 서해안권 경제협력벨트 완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새만금국제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이용률을 높이고 국가 기반시설 간 상승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래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철도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철도 인프라 구축을 건의했다. 지난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김준성 영광군수가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을 만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철도 반영을 촉구했다. 광주와 전남·북 각계각층에서도 노선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관계부처에 공동 건의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김준성 영광군수와 김산 무안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유기상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등 전남·북 5개 지자체 단체장은 지난 29일 영광군청 소회의실에서 전남·북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서해안철도 건설을 국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 했다. 〈영광군 제공〉

해남사랑상품권 500억 돌파…1400억 순항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억 더 판매…환전률도 7%P 오른 67%

해남사랑상품권 1분기 판매액이 500억원을 돌파했다.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사랑상품권 판매금액은 500억9500만원으로 지류로 477억900만원, 카드 23억8600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0억원이 더 판매됐다.

판매 후 현금으로 돌아오는 환전률도 67%로, 전년보다 7%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흐름도 빠르게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남군은 올해 전남지역 최대 금액인 140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도비 108억원을 확보해 10% 특별할인 판매, 구매고객 감사이벤트 등으로 군민 혜택을 최대로 늘리면서 상품권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의 분야별 정책과 연계한 정책 발행분도 적극 발굴해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해남군은 해남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해남사랑상품권 총 65억원을 지급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90억원, 공직자 복지포인트 13억원 등도 상품권으로 줬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전국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해남사랑상품권 운영이 지난해보다 더욱 빠르게 판매되고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정유통 없는 안정적인 운영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올해 1분기 해남사랑상품권 판매액이 5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00억원 늘어난 액수다. 사진은 지난 1월 해남사랑상품권 카드형 출시 모습. 〈해남군 제공〉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 힘쓰겠다"

민주당·목포시 당정협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 노력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와 목포시가 당·정 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사업을 논의했다.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는 지난 27일 목원동 트윈스타행정타운 대회의실에서 분기별 정례 당정협의회를 열어 목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들을 논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당·정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 추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대양산단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재지정 추진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친환경 선박클러스터 구축 지원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2022년 국고 확보 활동 계획 등 총 8건이다.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와 관련해 4월 행정안전부가 설립 부지 현장 방문, 선정지역 발표 등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목포시와 전남도, 민주당이 공동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 추진에 대해서는 목포시 철도재배치 용역 중간보고회를 4월에 개최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임성역 활용을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호남고속철도·남해안고속철도 사업과 연계하고 목포역 관련 국토부 용역과 연계성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오는 5월 시한이 만료되는 목포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 연장과 대양산단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해상풍력 지원부두와 배후단지가 조성되는 신항만 부지면적 협소와 관련해서는 해상풍력 연관사업과 기업유치 등이 용이하게 인근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선박클러스터가 들어서는 목포남항부지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건설이 본격화되는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은 목포시 전담팀을 구성해 지역 조선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목포시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설 등 총 132건 1조1859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국고 신규 및 지속 사업 예산 확보에 민주당과 목포시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 나가기로 합의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영암 특산물 한가득

氣찬들영암몰

내일 개관… 최대 50% 할인

영암군은 온라인 쇼핑몰인 '기찬들영암몰'을 다음달 1일 개관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의 중개장터 형식으로 운영해오던 '기찬들 쇼핑몰'을 새롭게 정비, 소비자가 상품을 바로 구매하고 결재가 가능하도록 구성함과 동시에 리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탑재했다.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기찬들영암몰'은 온라인 왕인문화축제 기간(4월 1~16일)에 바이럴 마케팅, 기획전, 특별전 운영 등을 통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영암군 농특산물의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관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영암몰 개관 기념 통 큰 할인! 봄맞이 최대 50% 할인해봄'이란 주제로 영암몰 내 모든 상품에 대해 최소 10%, 최대 50% 할인 가격으로 영암 농특산물을 판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온·오프라인 입체적 마케팅 전략 강화를 통해 영암의 농산물인 달마지쌀 골드, 무화과, 고구마, 멜론, 배, 대봉감, 매력한우 등이 대한민국의 대표 농산물로 자리잡고 있다"며 "영암 우수 농·특산물을 한곳에 모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영암몰을 운영하게 된 만큼 남도장터, 우체국 쇼핑몰과 판로망을 연계하고 수도권 직거래 행사 등 다양한 판매 전략을 통해 온·오프라인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튤립 섬' 임자도 홍매화도 핍니다

신안군, 1만3500주 심기로

신안군은 임자도 조희룡 미술관에서 임자도를 '홍매화의 섬'으로 선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섬 전체를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정원으로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조성을 위한 1읍면 1테마 정원사업의 일환으로 임자도의 꽃 '튤립'과 함께 특화수목으로 '홍매화'를 심어 숲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하는 임자도로 가꿀 계획이다.

임자도에는 총 1만3500주의 홍매화를 심을 계획이다.

올해는 6500주를 식재, 명품 산책로 3㎞를 조성하고 홍매화 외에도 동백나무와 측백나무를 함께 심어 계절감과 볼거리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임자대교 개통과 함께 홍매화 정원은 향기와 색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정원으로 튤립에 이어 임자도를 새롭게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①~⑤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충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투혼의 일대기!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2021 신간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 이야기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2020년 신간!
《바다와 나》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에세이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제5쇄 판매중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인기리 판매중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
왜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정유재란 7주갑을 맞아 펴낸 한중일의 공동연구서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최신간 양장
7년전쟁의 종전 7주갑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량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

www.bumwoosa.co.kr 전화 : 031)955-6900~4 예금계좌 : 054-24-0001-338 국민은행 예금주 : 범우사(윤형두)